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연
파견국가	Germany	파견도시	Brandenburg
파견대학	TechsnicheHochshule Brandenburg University	파견기간	2015.09-2016.08
귀국여부	아니오 - 8월 중순 귀국 예정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우선 독일 동쪽 brandenburg이라는 주에 위치하며 베를린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일반 타 대학에 비하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편의 시설, 기숙사 등이 잘 되어 있는 편이며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매우 좋습니다.
2015-2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German Class- 독일어 수업으로 많지 않은 학생들끼리 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독일어 향상은 물론 뜻깊던 수업이었습니다. Informatik und logik-한국에서의 수업내용과 비슷하며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자유로운 질문,토론방식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History of Brandenburg -교환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도시를 함께 여행하며 알아가던 것이 수업이 아닌 항상 소풍처럼 설레고 재미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Algorithmen und Datenstrukturen - 자료구조 수업이었지만 배우는 내용은 한국과 달리 이론쪽에 많이 치중되어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4-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Formal Language und AutomataTheory – 한국에서는 배우지 않은 과목이라 배우는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p> <p>Betriebssysteme/Webcomputing –웹컴퓨팅의 기본에 대해 배우며 실습시간 또한 따로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수업입니다.</p> <p>Mathematik2 – 독일어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실습시간에 함께 풀어가며 배워가고있습니다.</p> <p>Economic Integration in the EU 2016 – 경제수업이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유럽의 경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며 교수님 또한 매우 친절하시며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 배워갈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우선 처음 왔을 당시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하며 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으며, International office의 Heike Wolf 라는 분께서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은적은 없습니다. 또한 외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친구들도 사귄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 같은 경우 이곳또한 12-2월까지 겨울, 3-5월까지 봄, 6-8월까지 여름, 9-11까지 가을 한국과 똑같지만 지금 5월의 경우 저녁 10시정도는 되어 어두워 지고 반대로 겨울에는 오후 3시정도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덥지 않고 크게 춥지도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오기전에 동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종차별에 대해 조금 걱정했지만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작은 소도시 느낌이라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두워지면 거리에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혼자 걸어다니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며 한 flat에 4개의 각자 방에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거실과 주방, 욕실을 공유하는 방식이지만 각자 방이 있고 작지 않습니다. 물론 남녀공용이지만 오히려 이제는 따로쓰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적응되었으며 분위기도한 가족적이고 함께 생활하는 점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input type="radio"/>)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p> <p>외부식당 (<input type="radio"/>) 직접 요리 (<input checked=""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우선적으로 독일 식자재가 매우 싸기 때문에, 밖에서 외식하는 것이 입맛에 맞지 않을 뿐더러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기숙사 내에서 친구들과 요리해먹는 편입니다. 또한 다같이 요리해먹기 때문에 중국 음식, 대만, 독일 등등 새로운 요리들을 맛보며 재밌는 식사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처음 오면 semester card라는 학생증을 만들기 때문에 이 학생증으로 브란덴부르크 모든 곳의 train, tram, bus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ic 같은 고속철은 이용불가능하지만 기본 re-train 사용시 큰 불편함이 없으며 늦은 시간까지도 tram과 bus가 이용가능합니다.</p> <p>주요 도시를 이동할때는 flixbus 나 megabus처럼 저렴한 버스를 이용하거나 저렴한 에어라인을 이용하였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134,000원 (round-trip)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Semester fee (130euro) 1,2학기 두 번 내기 때문에 260euro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현지 보험 34.5euro
숙소	195 euro	
식비	대략 100euro (per month)	
교통비	유럽 여행시 대략 50euro	
책값	X (도서관 대여)	
기타1	기타 생활비 한달에 100만원정도	(여행경비 포함)
기타2	인터넷 30euro (학기별)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이 학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기전 자신의 전공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와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 방식 또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3번이상 결석하거나 지각 할 시 페널티가 부과되지만 이곳에서는 수업도중에도 교수님께 인사를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시 자기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지만 이같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여름과 겨울은 한국과 매우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밤 4시면 어두워지는 반면, 5월 말부터는 밤 10시가 지나야 어둑해지기 시작해지기 때문에 한국과 다른 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큰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학생이 총 40명 안팎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콰도르,프랑스, 요르단 등등 정말 다양한 나라들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우선, 오기 전 많은 학생들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를 읽고 교환학생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이미 중반을 넘어 수학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이 가장 큰 반환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학년을 마치고, 앞으로의 막막함이 앞서서 도피하듯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 시기 동안 문득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함에 이끌려 독일로 오게 되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등등 유럽 여행은 물론, 세계 각국 친구들도 사귀어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제 또래들은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 영어 점수, 자격증 등에 바쁘게 지내고 있을 생각을 하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놀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공 특성상, 포기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되돌아 보아 생각하면 절대 후회스러운 선택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보낸 1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한국에 돌아가서도 독일어는 물론, 영어 또한 열심히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다음 교환학생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경험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오스트리아 국립극장 앞에서 점프샷!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베를린 장벽에서



처음 먹었던 슈바인학센!!(in berlin)



폴란드 여행 중 대만친구들과 함께!



너무 예뻐던 부다페스트 야경